■민족문화연구 제91호(2021.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31-159.
http://doi.org/10.17948/kcs.2021..91.131

【특집: 사전 편찬의 역사성과 특수성】

근대 이후 편찬된 한국 한자 사전의 변화 양상 연구*

신상현(申相賢)**

목 차

1. 머리말
2. 근대 이후 간행된 한자 사전 개괄
3. 한자 사전 구조의 변화 양상
4. 한자 사전 편찬 방향의 변화 양상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근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주요 한자 사전을 대상으로 사전의 구성과 체제 등의 구조가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였는지를 고찰하여 향후 한자 사전 편찬에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근대 개화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간행된 주요 한자 사전을 세 시기로 나누어 사전 편찬의 경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구조와 내용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 양상을 ① 자형 처리의 변화, ②자음 처리의 변화, ③뜻풀이 처리의 변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먼저 자형 처리의 변화에서는 크게 ①부수 설정의 변화와 ②한자 부가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7-KFR-1230008).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정보가 확장되었다. 다음으로 자음 처리의 변화에서는 ①한자음 표기 방식이 다양화되고, ②현실음을 중심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소멸시키며, ③새로운 한자음을 추가하거나 변화시켜 한자음을 확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뜻풀이 처리의 변화에서는 ①영어와 일본어 대역 의미를 제시하였고, ②한국어의 古語, 死語, 卑俗語를 현대의 표준어로 바꾸어 편찬하며, ③한자의 품사 정보 표시를 시도하며, ④동사와 형용사를 '-다'형으로 끝을 맺어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 한자 사전의 변화 양상을 통하여, 첫째 다양한 종류의 자전과 옥편이 편찬되는 과정에서 한국화된 특유한 형태의 자전이 완성되었으며, 둘째 한자를 집대성한 자전과 옥편의 형태에서 한자 어휘 중심의 사전의 형태로 발전하였고, 셋째 10,000자 내외의 한자를 수록한 한자 학습사전이 많이 편찬되었다.

주제어: 근대, 한자 사전, 한자 자전, 한자 옥편, 변화 양상, 자형 처리의 변화, 자음 처리의 변화, 뜻풀이 처리의 변화, 한자 사전 편찬 방향, 한자 사전 편찬사.

1. 머리말

이 논문은 근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주요 漢字 辭典을 대상으로 사전의 구성과 체제 등의 구조가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였는지를 고찰하여 향후 한자 사전 편찬에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한자 사전은 '玉篇' 또는 '字典'이라는 이름으로 편찬되었는데, 한자를 부수와 획수에 의해 배열한 다음 해당 한자의 발음과 의미 및 용례를 간략하게 기술한 字書라 할 수 있다. 梁나라 武帝 大同 9년(543)에 太學博士 顧野王(519-581)이 『玉篇』 30권을 편찬한 이후 옥편은 한자 사전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청나라 강희제 때 『康熙字典』이 편찬된 이후 자전은 한자 사전의 주류가 되었다. 특히 옥편의 부수에 의한 배열 방법은 일종의 檢字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를 韻書의 검자에 응용하여 기존의 옥편과는 다른 일종의 '韻書 索引書' 또는 부록으로서의 '韻書 玉篇'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옥편과 자전 편찬의 영향을 받아 운서의 편집과 더불어 운서 옥편이 함께 편찬되는데, 조선 전기 崔世珍(1468-1542)에 의해 편찬된 『韻會玉篇』(1536) 2권과 조선후기 洪啓禧(1703-1771)에 의해 편찬된

『三韻聲彙補玉篇』(1751), 그리고 정조에 의해 편찬된 『奎章全韻』(1800)의 옥편인 『全韻玉篇』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전운옥편』은 기존의 운서 옥편과는 다른 편찬 체제를 보이는데, 단순히 『규장전운』에 수록된 한자를 부수별로 재배열하여 檢字에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만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강희자전』의 형식과 구성을 따랐으며, 本音·俗音·正音으로 나누었고, 중국 한자음과 한국 한자음을 구분하였으며, 한자의 뜻과 관련된 각종 부가 정보를 추가하여 자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게다가 이것은 이후의 자전 편찬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근대 초기의 대표적 자전인 『字典釋要』와 『新字典』을 비롯하여 『國漢文新玉篇』 등에서 그 구성과 체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全韻玉篇』을 따르고 있다.[1)]

이와 같은 전통적 개념의 옥편과 자전[2)]은 점차 漢字 辭典[詞典]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 즉 기존의 옥편이나 자전과 같이 形音義에 의거한 한자 설명 방식 위에 甲骨文과 金文 등의 漢字 字源學 연구 성과를 수용하고, 서양 사전학의 영향으로 실제 문헌에 사용한 한자 어휘를 부표제어로 함께 수록하였다. 이러한 한자 사전은 대체로 1950년대 이후부터 편찬되는데, 諸橋轍次에 의해 『大漢和辭典』(13권, 1955)이 간행된 이후, 『中文大辭典』(10권, 1973), 『漢語大辭典』(13권, 1993), 『漢韓大辭典』(16권, 2009)이 순차적으로 편찬되었다.

이렇게 한자 사전이 변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초기에 간행된 한자 사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된 편이나,[3)] 이들 한자 사전이 그

---

1) 이상의 내용은 졸고, 「朝鮮後期 文字言語學 硏究 흐름과 字書 編纂」, 『漢字漢文硏究』 5, 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 2009, 202-208면을 참고하여 요약 인용하였다.

2) 실제로 근대 이후 한국에서 편찬된 옥편과 자전은 그 내용과 체제로 볼 때 명확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단지 명칭의 유래로 인해 구분되는 점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3) 근대 개화기의 한자 자전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이 박형익, 전일주, 하영삼의 논의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 이충구와 하강진, 이승재 등의 논의가 있다.
박형익, 『한국 자전의 역사』, 도서출판 역락, 2012; 『한국 자전의 해제와 목록』, 도서출판 역락, 2016; 전일주, 『한국 한자자전 연구』, 중문, 2003; 하영삼 외, 『한국 근대 한자자전 연구』(한국한자연구소 연구총서 9), 도서출판3, 2019; 이충구, 「韓國字典 成立의 考」, 『반교어문연구』 3, 반교어문학회, 1991, 9-27면; 하강진, 「한국 최초의 근대 자전 『國漢文新玉篇』의 편찬 동기」, 『한국문학논총』 41, 한국문학회, 2005, 237-266면; 이승재, 「韓國 最初의 辭典을 찾아서」, 『한국사전학』 11, 한국사전학회, 2008, 7-30면.

이후 어떠한 변화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변화해 온 양상은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4] 이 연구는 이와 같은 한자 사전의 변화에 주목하여 근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한자 사전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근대 개화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간행된 주요 사전을 시기별로 나누어 개략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이어서 한자 사전의 구조 정보의 변화 양상을 자형과 자음의 처리, 그리고 뜻풀이의 처리가 각각의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이러한 변화들은 한국 특유의 자전과 옥편을 완성하게 하고, 한자 사전 편찬의 방향이 한자 어휘 중심의 사전으로 변화하였음을 고찰할 것이다.

2. 근대 이후 간행된 한자 사전 개괄

근대 이후 한국에서 편찬된 크고 작은 한자 사전은 대략 헤아려 보아도 2,200종이 넘는다.[5] 사전 편찬사의 측면에서 이들 모든 한자 사전이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연구에서는 한자 사전의 구조나 체제가 이전의 사전과 변별되거나 사전 편찬의 흐름을 주도하여 학술적으로 논의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전을 대상으로 개괄하기로 한다. 그리고 사전이 편찬된 시기를 기준으로 ① 1900년 이후-1945년까지, ② 1945년 이후-1980년대 말까지, ③ 1990년 이후의 세 시기로 나누어 사전 편찬의 경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겠다.

---

4) 박형익은 근대 이후 한국에서 간행된 한자 자전을 수집하여 간략한 해제를 하였으며 김억섭은 일제 강점기에 출간된 자전을 정리하였다. 박형익, 앞의 책, 2016, 참조; 김억섭, 「한국 근현대 한자자전[옥편]에 대한 小考—일제 강점기에 출간된 자전을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64, 한국중국언어학회, 2016, 113-131면 참조. 그리고 최미현은 근대 이후 편찬된 대표적 한자 사전 한자음의 변화 양상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정도이다. 최미현, 「자전류 한자음의 사라짐 양상 연구」, 『우리말연구』 40, 우리말학회, 2015, 101-122면; 「현대 자전류의 한자음 반영 양상」, 『우리말연구』 51, 우리말학회, 2017, 29-51면; 「현대 자전류에 반영된 한자음의 오류 양상」, 『우리말연구』 53, 우리말학회, 2018, 35-61면 참조.

5) 박형익은 15세기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서 간행한 사전의 목록을 조사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근대 이후 간행된 사전은 그 종수가 대략 2,000종이 넘게 수록되어 있다. 박형익, 앞의 책, 2016, 181-419면 참조.

1) 1900년 이후-1945년까지

근대 초기인 1900년 초의 한자 사전은 조선시대 옥편 편찬의 성과를 이어받아 한국의 한자음과 의미를 표기한 자전이 본격적으로 편찬되기 시작하였다.[6] 대표적인 자전으로 『字典釋要』, 『新字典』, 『國漢文新玉篇』, 『字林補註』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자전은 그 완성도나 구성과 체제 면에서 볼 때 『全韻玉篇』으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7]

이렇게 편찬되기 시작한 한자 사전은 일제 강점기로 접어들면서 몇 가지 변화가 보이는데, 기존의 자전이나 옥편과는 다른 구조와 체제로 바뀐다. 먼저 일본어와 영어, 중국어 등 주변국의 언어를 한자를 중심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경향을 나타내면서, 한자 사전의 내용과 구성을 변화시켜 일종의 다국어 사전이 편찬된다. 이것은 일제 강점기라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의해 일본어 등의 외국어 학습의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해당 표제 한자가 포함된 한자 어휘를 뜻풀이와 함께 부표제어로 배열하여 기존의 자전이라는 형태에서 한자뿐만 아니라 한자 어휘를 학습할 수 있는 한자 어휘 중심의 사전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이 변화하기 시작한 이 시기의 주요 사전에 대하여 기본적인 서지사항과 그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그리고 이들 한자 사전은 개정과 증보를 거치면서 1960년대 초반까지도 간행이 되었는데, 그만큼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겠다.

---

6) 한국에서 字典이라는 개념의 성립과 편찬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많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한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이충구, 전일주, 박형익의 논의를 들 수 있는데, 모두 한국 자전의 특징으로 한자의 韓國音義를 표기하는 것을 우선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20세기 초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성립한다고 하였다. 이충구, 앞의 글, 1991, 9-27면; 전일주, 「근대 계몽기의 사전 편찬과 그 역사적 의의—특히 '국한문신옥편'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17, 대동한문학회, 2002a, 77-104면; 박형익, 「한국의 자전」, 『한국어학』 23, 한국어학회, 2004b, 1-18면.

7) 졸고, 앞의 글, 202-208면 참조.

〈표 1〉 1900년 이후-1945년까지 편찬된 주요 사전 현황

번호	서명	편찬자	출판사	간행시기	비고
1	國漢文新玉篇	鄭益魯	耶蘇敎書院	1908	최초의 연활자본 근대식 자전
2	字典釋要	池錫永	匯東書館	1909	상해 周月記書局 石印本. 1952년까지 23차례 간행
3	日鮮大字典	朴重華	光東書局・普及書館	1912	표제자를 기준으로 음과 훈을 제시하고, 한문으로 뜻풀이를 함. 다시 일본어 음과 훈을 달고 뜻풀이를 함. 부록에 國字를 따로 모았음
4	校訂全韻玉篇	愼村子 黃泌秀 校訂, 池松旭 編	新舊書林	1913	정조 간행, 1898년 愼村子 黃泌秀 校訂本으로 1913년 新舊書林에서 간행
5	漢鮮文新玉篇	玄公廉	大昌書院・普及書館	1913	이전 사전을 참고하여 뜻풀이 증보. 1947년까지 여러 출판사에서 증보되거나 재판되어 간행
6	增補 字典大解	李鍾楨	光東書局	1913	字典大解의 증보판으로 간주됨. 검자에서 'ㄱ, ㅂ, ㅸ'를 별도로 배열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함
7	漢日鮮懷中新玉篇	朴健會	匯東書館	1914	포켓용 사전으로 뜻풀이를 간략하게 하였고, 표제자 옆에 일본어 음과 훈을 표기
8	新字典	柳瑾 外 共編	朝鮮光文會	1915	속음 병기, 한중일 속자 수록, 字典釋要의 결함 보완, 가장 현대적 사전
9	日鮮華英新字典	李瑙・金光淳 共編	新舊書林	1917	漢鮮文新玉篇을 참고하여 일본어 음과 훈, 조선어 음과 훈, 중국어 발음, 영어 뜻풀이 순으로 기술한 다국어 사전
10	字林補註	劉漢翼	大廣書林	1921	편찬자는 서예가로 全韻玉篇을 계승하여 편찬하였으며, 부록으로 字林摭奇가 있음. 상해 千頃堂印刷所 石印本..
11	新定醫書玉篇	金弘濟	光東書局	1921	의서를 볼 때 사용하는 참조용 사전으로 휴대용으로 간행. 1963년 修正增補 醫書玉篇 간행.
12	模範鮮和辭典	鄭敬哲・閔大鎬・趙男熙 共編	東洋書院	1928	표제한자에 한글 음훈과 한문 뜻풀이를 하고, 이어서 일본어 훈독과 뜻풀이를 한 다음, 한자어를 뜻풀이와 함께 부표제어로 수록함. 도량형, 영어 약어 등의 다양한 부록이 있음. 1944년 增補增訂 模範鮮和辭典 간행.
13	最新日鮮大字典	宋完植	東洋大學堂	1935	표제한자에 한글 음훈과 한문 뜻풀이를

					하고, 이어서 일본어 훈독과 뜻풀이를 함
14	漢日鮮滿新字典	李命七	三文社・以文堂	1937	표제한자에 대하여 조선어, 일본어, 중국어, 만주어의 음과 훈을 제시한 다음, 한자와 한글로 뜻풀이 함. 1956년 漢韓華支 新字典으로 다시 간행함.
15	新修日漢鮮大辭典	宋完植	永昌書館	1937	실생활에 필요한 한자 12,000자를 선정하여 한글 음훈과 한문 뜻풀이를 하고, 이어서 일본어 훈독과 뜻풀이를 하였으며, 표제어에 따른 한자어를 부표제어로 수록. 외래어를 부록으로 두고, 원어 정보를 제시.



〈그림 1〉『模範鮮和辭典』(東洋書院, 1944)



〈그림 2〉『日鮮華英新字典』(新舊書林, 1917)

2) 1945년 이후-1980년대 말까지

1945년부터 1950년까지는 대체로 이전의 한자 사전을 재판한 것이 많았고,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새로운 한자 사전이 간행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간행된 한자 사전의 주요 편찬 경향으로는 ① 표제한자 다음에 뜻풀이의 표기 방법에 변화가 나타나고, ② 부수를 조정한 경우가 있으며, ③ 독창적인 字典과 玉篇의 형태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현대 사전 편찬 방법론에 입각하여 다양한 형태의 한자 사전 편찬이 시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이전과 다르게 다량의 표제 한자를 수록한 대규모 한자 사전이 등장하였는데, 이것은 일본에서 1960년에 간행이 완료된 諸橋轍次의 『大漢和辭典』(13권)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8] 대표적인 사전으로는 1961년에 金敏洙가 이전까지 간행한 사전에 수록된 한자 23,558자를 모두 모아 표제한자로 수록하여 편찬한 『새字典』(東亞出版社)과, 1964년에 張三植이 표제한자 41,388자를 수록하고 한자어를 가나다순으로 부표제어로 배열하여 편찬한 『大漢韓辭典』(省文社)[9]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 한자 사전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았고, 오히려 표제한자를 2,000자에서 10,000자 전후로 선정하여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한자와 한자 어휘를 학습할 수 있도록 편찬한 한자 사전이 더 많이 간행된다. 이러한 흐름이 만들어진 것은 1964년부터 학교 교육에 쓰이던 교육한자 1,000자와 1972년에 선정되어 교육에 활용된 교육용기초한자 1,800자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사전 조판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1954년에 편찬된 『最新國漢大辭典』(文硏社)와 1955년 金敬琢이 편찬한 『學生漢韓字典』(東國文化社)에서 현대식 가로 조판 형태를 시도하여 이후로 점차 정착되었다.

이와 같이 현대적 사전 편찬 방법론에 입각하여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한 이 시기의 사전 가운데 중요한 사전에 대하여 기본적인 서지사항과

8) 『大漢韓辭典』(省文社, 1964)의 편찬자인 張三植은 초판 서문에서 "當初의 計劃은 日本版 漢和大辭典을 指針으로 하고 國內辭典類를 察考하여 四六版 千餘面 內外의 簡單한 것이었는데, (…)"라고 언급하고 있어 『漢和大辭典』이 한국의 한자 사전 편찬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9) 『大漢韓辭典』은 증보와 개정을 거치면서 여러 출판사에서 간행되었는데, 1964년에 省文社에서 간행된 이래로 1975년에 博文出版社, 1979년에 三榮出版社와 進賢書館, 1983년에 集文堂에서 각각 같은 이름으로 간행되었고, 1987년에 三省出版社에서 『大字源: 漢韓大辭典』이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1945년 이후-1980년대 말까지 편찬된 주요 사전 현황

번호	서명	편찬자	출판사	간행시기	비고
1	懷中國漢新玉篇	文世榮	東和堂書店	1946	포켓판으로 간행. 1961년 수정증보 86판 간행.
2	(玉篇兼用)漢韓辭典	大韓辭書刊行會	修文館	1948	영어 대역어와 영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
3	新字源	吳漢根	辭書出版社	1950	死字나 廢字 제외. 표제한자 아래에 신문과 잡지 등 실제 사용하는 한자어를 뜻풀이와 함께 가나다순으로 부표제어로 제시.
4	國漢明文新玉篇	金赫濟	明文堂	1952	표제한자의 전서체와 초서체를 상단에 수록. 한문으로 뜻풀이하여 한문을 아는 독자를 위한 한자 사전.
5	最新國漢大辭典	辭典編纂會	文硏社	1954	가로 조판. 표제한자 아래에 당시의 철자법에 따른 뜻풀이를 하고, 한자어를 뜻풀이와 함께 부표제어로 제시.
6	學生漢韓字典	金敬琢	東國文化社	1955	초중대학생을 위하여 표제한자 5,000자를 선정하고, 품사정보를 제시하고, 형용사와 동사를 '-다'형으로 뜻풀이하며, 변형된 부수 표기.
7	國漢最新弘字玉篇	弘字出版社 編輯部	弘字出版社	1958	國漢明文新玉篇과 비슷한 형식이나 뜻풀이가 상세하며, 고자, 신자, 속자, 약자 수록. 2008년 수정판 12쇄 간행.
8	새字典	金敏洙	東亞出版社	1961	이전까지 간행된 사전의 모든 한자인 23,558자를 표제한자로 수록.
9	國漢最新大字源	弘字出版社 編輯部	弘字出版社	1963	표제한자를 일본어와 영어로 대역하여 수록. 2004년 개정판 간행.
10	漢韓大辭典	東亞出版社 辭書部	東亞出版社	1963	강희자전의 214부수 외에 乁・丷・又・乃・生・井・夫 등을 부수로 설정하여 검색을 편리하게 함. 가로 편집을 하였고, 표제한자 10,000여 자 아래에 한자어를 뜻풀이와 함께 부표제어로 수록. 2000년까지 간행.
11	大漢韓辭典	張三植	省文社	1964	표제한자로 41,388자를 수록하고, 표제

					한자 아래에 한자어를 뜻풀이와 함께 가나다순으로 부표제어로 배열하고, 國字/國音, 日字, 中字로 분류하여 표기. 저자는 이 사전을 간략화한 여러 사전 편찬. 1987년 개정증보판 간행.
12	콘사이스 常用玉篇	東亞出版社 辭書部	東亞出版社	1965	한자에 대한 기본 뜻풀이와 일본어와 영어 대역어 제시, 한자어는 한글 발음만 제시하고 뜻풀이는 하지 제시하지 않음. 내용을 증보하여 콘사이스 活用玉篇(1965), 東亞現代活用玉篇(1972, 2001년 4판), 東亞新活用玉篇(1988, 2000년 2판 4쇄) 등의 이름만 다른 사전 간행.
13	漢韓大字典	民衆書館 編輯部	民衆書館	1966	표제한자 13,000자의 의미를 기술함과 동시에 그 용례정보와 출처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한자어를 뜻풀이와 함께 부표제어로 제시함. 2010년 3판 3쇄 간행.
14	民衆포켓漢字辭典	民衆書館 編輯局	民衆書館	1973	중고등학생용으로 편찬한 사전으로 漢韓大字典(1966)에서 한문 교육용한자 1,800자와 부수자를 포함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한자 4,000자를 뽑아 뜻풀이의 용례와 출처를 삭제하는 등 간략하게 줄이고 속자와 약자를 구분할 수 있게 '주의' 표시를 하여 간행. 1997년 엣센스 實用漢字辭典으로 이름만 바꾸어 간행. 2006년 초판 26쇄.
15	標準新敎育漢字辭典	敎學社 辭書部	敎學社	1974	중고등학생용으로 편찬한 사전으로 한문 교육용한자 1,800자와 부수자를 포함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자 2,636자를 부수와 획수순으로 배열하고, 그 아래에 한자어를 뜻풀이와 함께 가나다순으로 부표제어로배열하고,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대역하여 제시. 부수를 실제 자형에 맞추어 검색할 수 있게 하였는데, 예를

					들어 '좌부 방(阝)'을 '阜'가 아니라 '阝'에서 검색하게 함. 1996년 16쇄 간행.
16	東亞 現代漢韓辭典	東亞出版社 編輯局 編	東亞出版社	1980	한문 교육용한자 1,800자와 각종 교과서에 수록한 한자, 한문고전 독해에 필요한 한자, 약자와 속자 등 5,679자와 50,000개의 한자어를 획수순으로 수록. 부수자 '亻, 阝'와 결합한 한자는 '人, 阜' 부수로 귀속시키지 않고 실제 자형을 제시하여 귀속시킴. 중국어 발음과 일본어 병기. 1997년 개정판 17쇄.
17	뉴 에이스 漢韓辭典	金星出版社 辭書部 編	金星出版社	1989	한자를 부수순으로, 한자어를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병기하였으며, 현실음이 본음과 다를 때는 현실음을 먼저 제시하고 본음과의 관계를 표기. 2009년 19쇄.



〈그림 3〉『最新國漢大辭典』(文硏社, 1954)



〈그림 4〉張三植,『大漢韓辭典』(省文社, 1964)

3) 1990년 이후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자 사전은 기존의 성과를 이어받으면서 한층 발전하게 되는데, ① 사전 편찬 방법론을 정밀하게 연구하고, ② 한자 자원학과 한자 어휘 연구 성과를 사전 편찬에 반영하며, ③ 대규모 종합 사전이 편찬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시기의 한자 사전은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이 주도하게 되는데, 한자 사전 편찬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연구하고, 이미 대규모 사전을 편찬한 경험이 있는 중국과 대만, 일본 등과 연계하여 그 연구 성과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10] 그 결과 1992년에 한국에서만 사용하던 고유한자와 한자어를 모아 『韓國漢字語辭典』(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을 간행하고, 2008년에는 전 16권 분량으로 『漢韓大辭典』(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을 간행하는데, 한국의 한자 사전 편찬사에서 매우 중요한 결과라 할 수가 있다.

이전 시기에 편찬된 주요 사전들도 이 시기에는 이러한 연구와 방법론의 확산으로 개정과 증보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간행되는 것은 물론이다. 또 기존의 사전과 다른 특별한 종류의 사전이 편찬되는데, 1995년에 南廣佑가 우리나라에서 역대로 간행한 한자 학습서의 자음과 뜻풀이를 정리하여 『古今漢韓字典』(仁荷大學校 出版部)을 편찬한다. 이것은 한자 사전 편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어원학적 자료를 제공한 것이다. 또 정보사회로 접어들면서 한자 정보처리의 필요성에 의해 국제 표준 문자코드(UCS)에 수록된 한자 70,234의 기본적인 정보와 異體字 및 通用字 關係를 설정한 『유니코드 한자정보사전』(고려대학교출판부)을 2013에 편찬한다. 이것은 일반인을 위한 사전이 아니라 정보처리를 위한 '기계 가독형 사전(MRD: Machine Readable Dictionary)'이다.

이와 같이 1990년 이후 편찬된 사전 가운데 중요한 사전에 대한 기본적인 서지사항과 그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

10)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의 주요한 성과로는 『동아시아 한자사전과 『한한대사전』』, 단국대 출판부, 2013; 『동아시아 고유한자와 사전 편찬』, 단국대 출판부 2014; 『동아시아 한자사전의 현황과 과제』, 단국대 출판부, 2020이 있다.

〈표 3〉 1990년 이후 편찬된 주요 사전 현황

번호	서명	편찬자	출판사	간행 시기	비고
1	韓國漢字語辭典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編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1992	1978년 편찬 시작하였고, 5,174개 표제자와, 이두 1,472개, 구결 349개, 차자어 2,699개를 포함하여 한국에서만 사용한 한자어 89,705개 수록. 3,500여 책의 한국 고문헌에서 찾은 한국 한자어 수록하였고, 고유한자는 '國字', 한국에서만 쓰는 뜻은 '國義', 이두는 '吏讀' 등으로 표기. 1992년 1권 간행 이후 1996년 전 4권 1세트로 완간.
2	古今漢韓字典	南廣佑 編	仁荷大學校 出版部	1995	초학서, 언해, 전통 자전에 수록된 한자, 한문 교육용한자 1,800자, 북한 교육용한자 3,000자 등을 참고하여 7,352자 수록. 한자를 부수순이 아닌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고, 자형이 여럿인 경우에는 전래 문헌에 따라 표준 자형을 제시하였으며, 뜻풀이는 전통 자전의 원전 뜻풀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나열함.
3	敎學大漢韓辭典	大漢韓辭典 編纂室 編	敎學社	1998	표제자 37,823자 부수순으로 배열하였는데, 00001부터 37823까지 고유번호를 매기고, 한글음, 반절음, 중국음, 일본음을 차례로 제시함과 아울러 관용음과 본음을 표기하며, 뜻풀이에는 용례와 출전을 제시하여 독해에 도움을 줌. 표제자의 변천을 보이기 위해 소전-초서-본자-고자-약자-속자-위자를 표기하였고, 각 표제자가 포함된 한자어를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여 뜻풀이함.
4	漢韓大辭典	檀國大 東洋學硏究所 編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1999-2008	전 16권으로 2008년에 완간. 한중일에서 사용하는 한자 53,667자와 이에 따른 한자어 420,269개를 수록하여 동양 최대의 사전. 표제자는 대체로 敎學大漢韓辭典와 비슷한 체제를 보이는데, 說文解字의 뜻풀이를 먼저 기술한 것과 본자와 고자, 속자, 약자, 와자, 주문 등과의 관계를 표기한 것이 특징.
5	유니코드 한자정보사전	김흥규 외 6인 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3	국제 표준 문자코드(UCS)에 수록된 '한중일통합한자'의 기본(main) 영역부터 '확장 B' 영역까지 수록되어 있는 한자 70,234에 대한 자음과 자의, 그리고 異體字 및 通用字 關係를 설정한 '기계 가독형 사전(MRD: Machine Readable Dictionary)'임.

3. 한자 사전 구조의 변화 양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 이후 본격적으로 편찬되기 시작한 한자 사전은 백여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사전의 구조와 내용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것은 그동안 진행되어 온 한자학의 발전과 한자 어휘 연구 성과의 축적, 서양식 사전 편찬 방법론의 적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을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자형 처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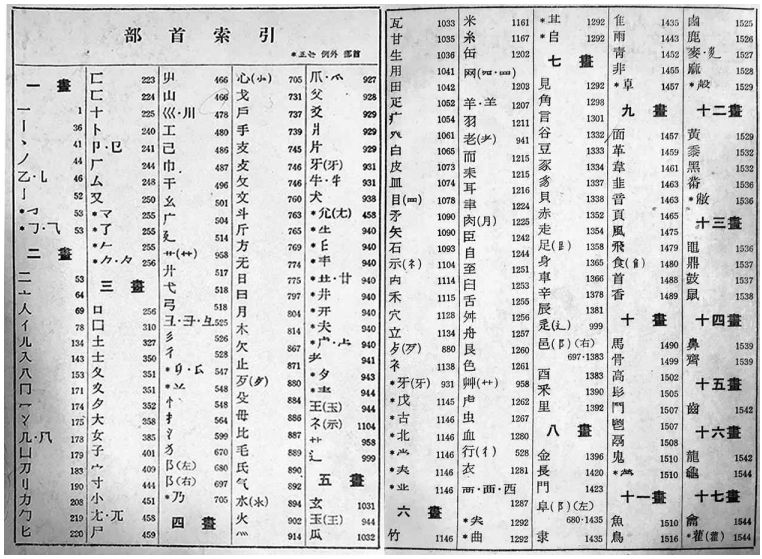
(1) 부수 설정의 변화

부수로 한자를 분류하는 방식은 한나라 때 許愼이 『說文解字』에서 한자의 의미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글자 540개를 설정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역대로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명나라 때 梅膺祚가 『字彙』를 편찬하면서 기존의 부수를 214부수로 조정하였는데, 명나라 張自烈이 편찬한 『正字通』과 청나라 강희제에 의해 편찬된 『康熙字典』에서 214부수 체계를 따르면서 이후의 한자 사전 편찬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근대 이후 편찬된 한국의 한자 사전에서도 기본적으로 214부수 체계를 따라 한자를 배열하고 있다. 그러나 몇 몇 사전에서 214부수 체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가장 이른 것으로 1913년 李鍾楨이 편찬한 『增補 字典大解』(光東書局)의 檢字에서 '亻·刂·阝'를 부수처럼 별도로 설정하여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1974년에 편찬된 『標準新敎育漢字辭典』(敎學社, 1974)에서도 적용되어 '阝'을 '阜'가 아니라 '阝'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수의 변화가 가장 많은 것은 1963년에 간행된 『漢韓大辭典』(東亞出版社)으로, 214부수 외에 검색의 편리를 위해 '冖·冂(冃)·⺕·了·𠂉·𠂇(𠂤)·歹(𣥂)·⺍·乃·允(尢)·生·臣·丰·卄(廿)·井·开·夫·卢(虍)·多·耒·戊·古·北·𡈼·奏·𢆶·癸·曲·甘·自·卓·𣪊·殼·敝·雚' 등을

별도로 부수로 설정하고, 새로 추가한 부수 앞에는 '*'를 표기하여 구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도는 이후에 나타난 사전에서는 적용되어 이어지지 않았던 것 같으며, 대부분이 기존의 214부수 체계로 한자를 배열하고 있다. 다만 1980년에 편찬된 『東亞 現代漢韓辭典』(東亞出版社)에서 '亻·阝' 부수를 '人·阜' 부수와 분리하여 별도로 설정하고서 실제 자형에 따라 해당 한자를 귀속시켰다.


部首索引

〈그림 5〉『漢韓大辭典』(東亞出版社, 1963)의 部首索引表

(2) 한자 부가 정보의 확장

근대의 대표적 자전인 『字典釋要』와 『新字典』 등에서는 표제한자에 대한 음과 뜻풀이, 그리고 간단한 용례와 韻字를 표기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자 자체에 대한 부가 정보가 확장되었는데, 이것은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외부적 요소로는 1960년 諸橋轍次가 편찬한 『大漢和辭典』(13권)과 1973년 대만에서 간행한 『中文大辭典』(10권)에서 한자를 처리 방식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고, 내부적 요소로는 1978년부

터『韓國漢字語辭典』과『漢韓大辭典』편찬을 시작하면서 한자학과 사전 편찬 방법론 연구 성과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각각의 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 정보를 확장하여 표기하였다.

① 象形, 指事, 會意, 形聲, 轉注, 假借의 六書 정보를 표기하였다.
② 國字와 吏讀字, 日字, 中字 등을 구별하여 표기하였다.
③ 本字, 古字, 略字, 俗字, 僞字를 구별하여 표기하였다.
④ 甲骨文, 金文, 小篆, 草書 등의 자형을 제시하여 변천 양상을 알게 하였다.
⑤ 異體字와 通用字 정보를 표기하였다.
⑥ 해당 한자의 反切音을 표기하고 韻字를 제시하였다.
⑦ 해당 사전에 수록된 전체 한자에 대해 고유번호를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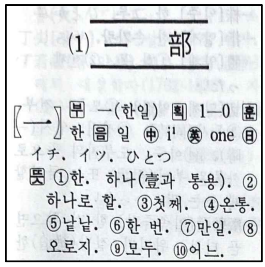
이러한 변화는 1964년에 張三植이 편찬한『大漢韓辭典』(省文社)에서부터 가시화가 되며, 1998년에 편찬된『敎學 大漢韓辭典』(敎學社)과 2008년에 편찬된『漢韓大辭典』(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에서 완전하게 자리를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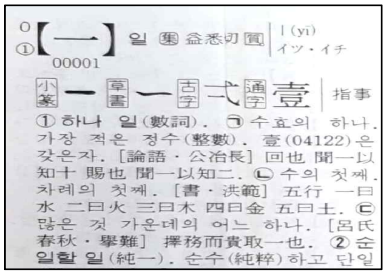
〈그림 6〉『新字典』(朝鮮朝鮮光文會, 1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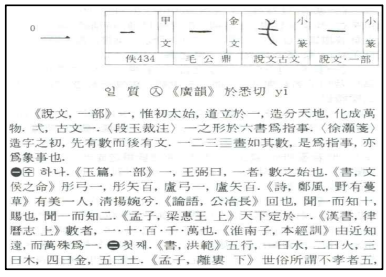
〈그림 7〉『大漢韓辭典』(省文社, 1964)



〈그림 8〉『標準新敎育漢字辭典』(敎學社, 1974)



〈그림 9〉『敎學大漢韓辭典』(敎學社, 1998)



〈그림 10〉『漢韓大辭典』(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 2008)

2) 자음 처리의 변화

(1) 한자음 표기 방식의 다양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근대 이후 편찬된 한자 사전은 한자 부가 정보의 확장과 함께 한자의 자음 처리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한자 발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한다. 『字典釋要』와 『新字典』 등에서는 해당 한자에 대하여 한글음을 표기하고, 한시를 짓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韻字를 표기하는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일제 강점기로 접어들면서는 일본어와 영어, 중국어 등 주변국의 언어를 한자를 중심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경향을 나타내면서, 일종의 다국어 사전이 편찬된다.

이러한 종류의 한자 사전으로는 1912년에 朴重華가 한글로 자음과 뜻풀이를 한 다음 일본어 한자음과 훈을 표기하여 편찬한 『日鮮大字典』(光東書局・普及書館)에서 처음 시도되며, 1917년에 李瑙과 金光淳이 '한자-일본어 음과 훈-조선어 음과 훈-중국어 발음-영어 뜻풀이'의 순으로 기술한 『日鮮華英新字典』(新舊書林)이 편찬된다. 그리고 1937년에는 李命七이 '조선어-일본어-중국어-만주어'의 음과 훈을 제시한 다음, 한자와 한글로 뜻풀이를 한 『漢日鮮滿新字典』(三文社・以文堂)이 편찬된다. 이와 같은 흐름은 그 뒤에도 한자 학습용 사전 편찬에 계승되어 이어지고 있다.

이것과 별도로 1964년에 張三植이 편찬한 『大漢韓辭典』(省文社)에서는 한자음을 反切로 표기함과 아울러 韻字와 聲調를 표기하는데, 이러한 시도는 그 뒤에 1998년에 편찬된 『教學大漢韓辭典』(教學社)과 2008년에 간행이 완료된 『漢韓大辭典』(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院)과 같은 대규모 사전에서 계승되어 발전되었다.

(2) 漢字音의 소멸과 확장

한자음 표기 방식의 다양화와 더불어 한자음이 확장되거나 소멸, 또는 다른 음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보인다.[11] 이것은 사전을 편찬할 때에 古音이나

11)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는 최미현의 다음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최미현, 앞의 글, 2015,

本音 등 한자음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현실음을 위주로 남기고 나머지를 소멸시켰으며, 새로운 한자음을 추가하거나 변화시켜 확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多義音의 소멸 : 乾에서 '간'음의 소멸

- 『校訂全韻玉篇』(1913) : [건]天之性情健也卦名不息--馬飾連-(先) ; [간]燥也(寒)
- 『新字典』(1915) : [건]하날, 굿셀, 산아이, 조심할 ; [간]마를
- 『大漢韓辭典』(1964) : [건]渠焉切(先) 하늘, 괘이름, 사나이, 임금, 아비, 서북쪽, 굳셀, 부지런할 ; [간]居寒切(寒) 마를, 말릴, 엄히수렴할
- 『民衆漢韓大字典』(1966) : [건]①渠焉切(先) 하늘, 건괘, 임금, 굳셀, 부지런할 ; ②古寒切(寒) 마를, 말릴, 건성, 건성으로 할, 성(姓)
- 『教學大漢韓辭典』(1998) : [건]渠焉切(先) 하늘, 괘이름, 임금, 아비, 사내, 태양, 남편, 서북방, 굳셀, 부지런히 힘쓰는 모양 ; [건·本音 간]居寒切(寒) 마를, 말릴, 고갈될, 까닭없이, 유명무실한, 이익볼
- 『漢韓大辭典』(2008) : [건]渠焉切(仙) 솟아나다, 8괘의 하나, 하늘, 임금, 아버지, 남성·수컷, 말, 북서쪽, 세다·굳세다·강하다 ; [건(간)]古寒切(寒) 마르다, 말리다, 다없어지다·고갈되다, 소리가 깔깔하고 메마르다, 의로 맺은 친속 관계를 나타내는 말, 이름뿐인·유명무실한, 나처하게 하다·무안을 주다, 푸대접하다, 말린 식품, 획이 거칠고 광택이 없는 글끼, 건성으로·거짓으로·겉으로만, 성(姓)

② 複數音의 소멸 : 匐에서 '븍[북]'음의 소멸

- 『校訂全韻玉篇』(1913) : [복]手行匍-又盡力趨(屋) 服伏通 ; [븍]義同(職)
- 『新字典』(1915) : [복]엉금엉금길, 달음박질할(屋) 服伏通 ; [븍]義同(職)
- 『大漢韓辭典』(1964) : [복]鼻墨切(職) 엉금엉금길 ; [북]步木切(屋) 뜻은 앞과 같음
- 『民衆漢韓大字典』(1966) : [복]蒲北切(職)·房六切(屋) 기어갈, 엎드릴
- 『教學大漢韓辭典』(1998) : [복]步木切(屋) 길 ; [북]鼻墨切(職) 뜻은 앞과 같다.
- 『漢韓大辭典』(2008) : [복]方六切(屋) 엎드리다, 엎어지다, 기다 ; [복]蒲北切(德) 뜻은 앞과 같다.

③ 뜻과 음의 동시 소멸 : 嫋에서 '약'음의 소멸

101-122면; 앞의 글, 2017, 29-51면; 앞의 글, 2018, 35-61면.

・『校訂全韻玉篇』(1913) : [뇨]柔長貌-娜悠揚--(篠) ; [약]弱貌--(藥)
・『新字典』(1915) : [뇨]휘늘어질, 간듯거릴, 하늘거릴(篠) ; [약]간열필(藥)
・『大漢韓辭典』(1964) : [뇨]乃了切(篠) 간들거릴, 하늘거릴, 휘늘어질, 소리가 길게 들리는 모양 ; [약]日灼切(藥) 가냘플
・『民衆漢韓大字典』(1966) : [뇨]奴鳥切(篠) 휘청휘청할, 간드러질, 바람에 흔들릴
・『教學大漢韓辭典』(1998) : [뇨]乃了切(篠) 바람에 한들거리는 모양, 가냘픈 모양, 소리가 가늘고 길게 이어지는 모양 ; [약]日灼切(藥) 뜻은 앞과 같다.
・『漢韓大辭典』(2008) : [뇨]奴鳥切(篠) 호리호리하다·날씬하며 아름답다, 하늘거리다·한들거리다, 소리가 은은하고 구성지다, 나풀나풀 춤추다

④ 자음의 추가에 의한 확장 : 不에서 '비'음의 추가
・『校訂全韻玉篇』(1913) : [부]未定辭鳥名夫-姓也(尤) 鴀通又同否(有) 未定之辭(宥) 丕通 ; [불]未也非也-然-可(物) 弗同
・『新字典』(1915) : [부]아닌가, 丕通 ; [불]아니, 아닐, 못할, 弗同
・『大漢韓辭典』(1964) : [부]俯九切(有)·方九切(尤) 아니, 그렇지 않을 ; [불]逋沒切(月) 아닌가, 새이름
・『民衆漢韓大字典』(1966) : [불]分勿切(物) 아니, 아니할 ; [부]甫鳩切(尤) 아닌가, 성(姓) ; [비]風無切(虞) 클(丕와 통용)
・『教學大漢韓辭典』(1998) : [불]分勿切(物) 아닐, 아니할, 이르지 아니할, 없을, 말, 어조사, 클 ; [부]俯九切(有) 뜻은 앞과 같다 ; [부]甫鳩切(尤) 아닌가, 새이름, 성(姓) ; [부]風無切(虞) 꽃받침, 성 ; [비]補美切(紙)(否와 통용) 바르지 아니할, 경멸할
・『漢韓大辭典』(2008) : [불]分勿切(物) 아니다, 없다, 아직 ...를 하지 않다·미처 ,,,에 아르지 못하다, ...하지 않다·...하지 말라, 어조사 ; [부]方久切(有) 새가 날아 오르는 모양, 아니다·그렇지 아니하다(否와 통용) ; [부]甫鳩切(尤) 새의 이름, 성(姓) ; [부]風無切(虞) 꽃받침 ; [비]補美切(紙) 크다(丕와 통용), 바르지 아니하다·옳지 아니하다(丕와 통용)나쁘다(否와 통용), 더럽다·더럽게 여기다(鄙와 통용)

⑤ 한자음의 변화에 의한 확장 : 亶에서 '탄'음이 '단'음으로 변화, '선·전'음의 추가
・『校訂全韻玉篇』(1913) : [천]不進-佃(先) ; [탄]舒閒--(旱)
・『新字典』(1915) : [천]머뭇거릴 ; [탄]천천할
・『大漢韓辭典』(1964) : [천]時連切(先) 머뭇거릴 ; [탄]徒亶切(旱) 조용할
・『民衆漢韓大字典』(1966) : [천]市連切(先) 머뭇거릴 ; [단]儻旱切(旱) 찬찬할(동

작이 찬찬하여 느린 모양) ; [선]時戰切(霰) 사양할

- 『敎學大漢韓辭典』(1998) : [천]市連切(先) 머뭇거릴 ; [탄]儻旱切(旱) 찬찬한 모양 ; [단]徒案切(旱) 제멋대로 할, 다만 ; [선]時戰切(霰) 전할(양위하다)
- 『漢韓大辭典』(2008) : [천]市連切(仙) 배회하다, 돌다·회전하다, 모양·태도, 빠르다 ; [단]徒干切(寒) 앞과 같다. ; [선]時戰切(線) 선위하다, 양위하다 ; [탄]儻旱切(緩) 느긋한 모양·한가한 모양 ; [단]徒案切(換) 방종하다·방일하다, 다만·한갓 ; [전]旨善切(獮) 벌거벗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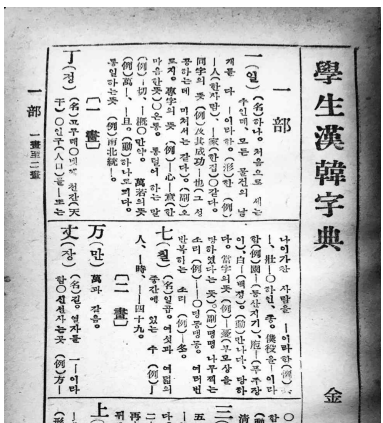
3) 뜻풀이 처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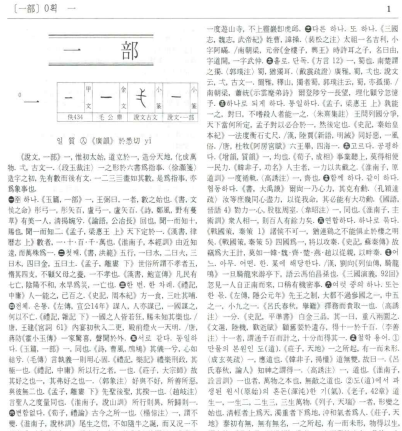
뜻풀이 처리에서는 표제한자 다음에 뜻풀이 표기 방법의 변화를 시도한다. 뜻풀이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변화는 영어와 일본어 대역 의미를 제시하였다는 것인데, 1945년 이전에는 일본어 위주로 대역 의미를 제시하다가 1945년 이후부터는 영어와 일본어를 함께 제시하였다. 이것은 이후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는데, 학생들을 위한 학습용 한자 사전에서는 일반화되어 필수 사항이 된 반면, 대규모 사전에서는 없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의 古語, 死語, 卑俗語를 현대의 표준어로 바꾸어 편찬하기 시작하는데,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국내에서 사전 편찬학 연구가 활성화되고,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8년 간행이 완료된 『漢韓大辭典』(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에서 몇 가지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로 왈(曰)' → 말하다
- '선거 병(浜)' → 땅이름에 쓰인 글자. 沙家浜, 張華浜 등이 있다.
  (*선거 : 배를 매어 두던 곳)
- '지게 호(戶)' → 외짝문
- '계집 녀(女)' → 여자
- '백성 민(民)' → 사람
- '뫼 산(山)' → 산
- '놈 자(者)' → 사람
- '대 세(世)' → 인간, 세상

뜻풀이 처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품사 정보의 표시와 동사와 형용사를 ‘-다’형으로 끝을 맺어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처음으로 이를 시도한 사전으로는 金敬琢이 1955년에 편찬한 『學生漢韓字典』(東國文化社)을 들 수 있는데, 이 사전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을 위한 학습용 한자 사전으로 표제한자 5,000자를 선정하여 한자음과 뜻풀이를 달고 부수와 획수순으로 배열한 것이다.


學生漢韓字典
金敬琢編
一部 一畫 三畫


一部

〈그림 11〉 金敬琢, 『學生漢韓字典』(東國文化社, 1955)

〈그림 12〉 『漢韓大辭典』(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 2008)

이 사전은 이전의 한자 사전과 다르게 매우 과감하게 뜻풀이 방식을 변화시켰는데, ① 명사, 형용사, 동사, 전치사, 부사, 조사에 대하여 품사 정보를 표시하였고, ② 동사와 형용사를 ‘-다’형으로 끝을 맺어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이후에 편찬된 사전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다가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에서 간행한 『漢韓大辭典』에서 대명사, 부사, 수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에 한해서 품사 정보를 표시하고, 동사와 형용사를 '-다'형으로 끝을 맺으면서 『學生漢韓字典』을 계승하였다.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에서 간행한 『漢韓大辭典』은 모두 16권으로 편찬한 대규모 사전으로서, 기존의 사전을 두루 참고하고 각종 문헌으로부터 용례를 추출하였으며, 사전 편찬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연구하여 반영한 종합 사전이므로 이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12]

4. 한자 사전 편찬 방향의 변화 양상

이상과 같이 근대 이후 편찬된 한국 한자 사전의 변화 양상을 자형과 자음, 그리고 뜻풀이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한자 사전 편찬 방향이 어떠한 개념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그 흐름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겠다.

첫 번째로 자전 또는 옥편의 형태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근대 초기에 『字典釋要』와 『新字典』과 같은 자전이 편찬되지만, 실제로 내용과 구성이 비슷하여 자전과 옥편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13] 이러한 까닭으로 근대 초기에 한국 자전이 성립되었지만 이후에도 자전과 옥편은 계속 편찬되었고, 또 다양한 형태로 편찬된 자전과 옥편은 상호간의 교섭과 영향 관계를 가지면서 이전보다 발전된 형태로 편찬된다. 그리하여 근대 이후 성립된 한국의 한자 자전이 그 구조와 내용 면에 있어서 한국화 되어 특유한 형태로 완성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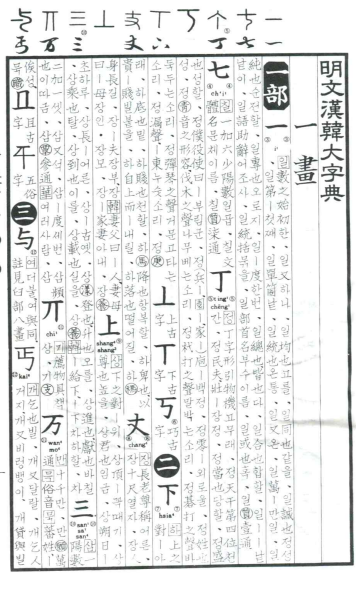
대표적인 사전으로는 1984년 明文堂에서 간행한 『明文漢韓大字典』이 있는데, 이것은 1952년에 간행한 『國漢明文新玉篇』(明文堂)을 개정·증보한 것이다. 편찬자인 金赫濟와 金星元은 1952년부터 증보 작업을 진행하여 1968년

12)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앞의 책, 2013 참조.
13) 근대 이후에 편찬된 대부분의 자전과 옥편은 기본적으로 『全韻玉篇』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름만 서로 다를 뿐이지 그 구성과 체제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겠다.
14) 근대 이후 성립된 한국 자전의 특징으로 표제한자에 대한 한국 자음과 뜻풀이를 표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다.(앞의 각주 6번 참조.)

에 탈고를 하였으나, 출판사 사정으로 출판을 못하였다. 그 뒤 1977년부터 金星元이 다시 편찬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康熙字典』을 주로 하여 『全韻玉篇』의 체례를 따라 내용을 개정하고, 표제한자를 51,853자로 증자한 대규모 자전을 완성하였다.

전체적인 구조와 체제는 근대에 성립된 한국 자전을 수용하고 있으나, 해당 한자에 대하여 한글 발음 외에도 현대 중국어 음을 표기하였고, 예문을 대폭 증보하였으며, 각 페이지에 수록된 한자의 정자의 경우에는 전서와 초서를 상단에 표기하였다. 또한 楷書를 기준으로 "篆書-隸書-行書-草書"를 수록한 「書體字典」을 부록으로 실어 서예가들이 작품 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구조와 체제는 『康熙字典』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한국어의 특징과 한국의 실정에 맞추어 새로 편찬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만의 특유한 형태의 자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國漢明文新玉篇
一畫
松亭 金赫濟 著


明文漢韓大字典
一畫

〈그림 13〉 金赫濟, 『國漢明文新玉篇』(明文堂, 1952) 〈그림 14〉 金赫濟・金星元, 『明文漢韓大字典』(明文堂, 1984)

두 번째로 한자를 집대성한 자전과 옥편의 형태에서 한자 어휘 중심의 사전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1928년에 편찬된『模範鮮和辭典』(東洋書院)에서 이미 보이기 시작하는데, 표제한자에 한글 음훈과 한문으로 뜻풀이를 하고, 이어서 일본어 훈독과 뜻풀이를 한 다음, 해당 한자가 포함된 한자 어휘를 각각 한글과 일본어로 음훈과 뜻풀이를 하여 부표제어로 수록하였다. 이러한 편찬 구조는 1937년 宋完植이 편찬한『新修日漢鮮大辭典』(永昌書館)으로 이어지다가 1945년 이후에는 '한자 사전'이라는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면서 많은 수의 사전이 편찬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한자 사전 편찬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방법론 연구 결과를 적용하면서 대형화되고 체계화되면서 한층 발전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전으로는 1964년에 張三植이 편찬한『大漢韓辭典』(省文社), 1998년 편찬한『敎學大漢韓辭典』(敎學社), 2008년에는 전 16권 분량으로 간행한『漢韓大辭典』(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로 한자 학습사전이 많이 편찬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일제 강점기로 접어들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한자를 중심으로 일본어와 영어, 중국어 등의 주변국 언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일종의 다국어 사전이 편찬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의해 일본어 등의 외국어 학습의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는 대규모 한자 사전으로 발전하기보다는 2,000자에서 10,000자 내외의 표제한자를 수록하고,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한자와 한자 어휘를 학습할 수 있도록 편찬되어 다량으로 간행된다. 특히 1964년부터 학교 교육에 교육한자 1,000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1972년에 교육용기초한자 1,800자를 선정하면서 더욱 활발하게 편찬되어 간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5. 맺음말

이상의 논의에서 근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주요 한자 사전을 대상으로 사전의 구성과 체제 등의 구조가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근대 개화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간행된 주요 사전을 편찬된 시기를 기준으로 ①조선시대 옥편 편찬의 성과를 이어받아 한국의 한자음과 의미를 표기한 자전이 본격적으로 편찬되기 시작한 1900년 이후부터 1945년까지, ②현대 사전 편찬 방법론에 입각하여 다양한 형태의 한자 사전 편찬이 시도되었던 1945년 이후부터 1980년대 말까지, ③사전 편찬 방법론 연구를 접목하고 한자 자원학과 한자 어휘 연구 성과를 사전 편찬에 반영하여 대규모 종합 사전이 편찬되는 1990년 이후의 세 시기로 나누어 사전 편찬의 경향을 개략하였다.

이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한자 사전의 구조와 내용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자형처리, 자음 처리, 뜻풀이 처리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자형 처리의 변화에서는 크게 ①부수 설정의 변화와 ②한자 부가 정보가 확장되었는데, 전통적인 214부수를 실제 자형을 기준으로 부수를 추가로 설정하고자 하였고, 실제 자형에 따라 해당 한자를 귀속시켰다. 그리고 표제한자에 자체에 대한 부가 정보가 확장되었는데, 이것은 한자학과 사전 편찬 방법론 연구 성과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음 처리의 변화에서는 ①한자음 표기 방식이 다양화되었고, ②한자음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현실음을 중심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소멸시켰으며, ③새로운 한자음을 추가하거나 변화시켜 한자음을 확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뜻풀이 처리의 변화에서는 ①영어와 일본어 대역 의미를 제시하였고, ②한국어의 古語, 死語, 卑俗語를 현대의 표준어로 바꾸어 편찬하였으며, ③한자의 품사 정보 표시를 시도하였으며, ④동사와 형용사를 '-다'형으로 끝을 맺어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한자학의 발전과 한자 어휘 연구 성과의 축적, 서양식 사전 편찬 방법론의 적용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근대 이후 편찬된 한국 한자 사전의 변화 양상을 통하여 한국의 한자 사전 편찬 방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종류의 사전이 편찬되는 과정에서 한국만의 특유한 형태의 자전과 옥편의 형태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한자를 집대성한 자전과 옥편의 형태에서 한자 어휘 중심의 사

전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사전은 한자 사전 편찬 방법론 연구와 더불어 대형화되고 체계화되면서 한층 발전하게 된다.

세 번째로 한자 학습사전이 많이 편찬되었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의해 일본어 등의 외국어 학습의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2,000자에서 10,000자 내외의 표제한자를 수록하여 학생들이 한자와 한자 어휘를 학습할 수 있도록 편찬되었다.

이와 같이 근대 이후 한국에서 간행된 한자 사전의 편찬 경향과 흐름은 향후에 새로운 한자 사전을 편찬하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근래에는 각종 한국 고전적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되면서 사전 편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넘치고 있는데, 이들 자료로부터 한자 어휘를 추출하여 표제어로 선정한다든지, 용례를 추가한다든지 하는 작업에 기존의 한자 사전 편찬 구조의 변화와 편찬 방향은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김억섭,「한국 근현대 한자자전[옥편]에 대한 小考—일제 강점기에 출간된 자전을 중심으로—」,『중국언어연구』64, 한국중국언어학회, 2016, 113-131면.
단국대 동양학연구원,『동아시아 한자사전과『한한대사전』』, 단국대 출판부, 2013.
_____,『동아시아 고유한자와 사전편찬』, 단국대 출판부, 2014.
_____,『동아시아 한자사전의 현황과 과제』, 단국대 출판부, 2020.
박형익,『한국 사전과 사전학』, 월인, 2004a.
_____,「한국의 자전」,『한국어학』23, 한국어학회, 2004b, 1-22면.
_____,『한국 자전의 역사』, 도서출판 역락, 2012.
_____,『한국 자전의 해제와 목록』, 도서출판 역락, 2016.
신상현,「朝鮮後期 文字言語學 硏究 흐름과 字書 編纂」,『漢字漢文硏究』5, 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 2009, 187-222면.
李忠九,「韓國字典 成立의 考」,『반교어문연구』3, 반교어문학회, 1991, 9-27면.
_____,「韓中日 字典 比較 硏究」,『반교어문연구』11, 반교어문학회, 2000, 3-70면.
田日周,「근대 계몽기의 사전 편찬과 그 역사적 의의—특히 '국한문신옥편'을 중심으로—」,『대동한문학』17, 대동한문학회, 2002a, 77-104면.
_____,『한국 한자자전 연구』, 중문, 2003.
최미현,「자전류 한자음의 사라짐 양상 연구」,『우리말연구』40, 우리말학회, 2015, 101-122면.
_____,「현대 자전류의 한자음 반영 양상」,『우리말연구』51, 우리말학회, 2017, 29-51면.
_____,「현대 자전류에 반영된 한자음의 오류 양상」,『우리말연구』53, 우리말학회, 2018, 35-61면.
하강진,「한국 최초의 근대 자전『國漢文新玉篇』의 편찬 동기」,『한국문학논총』41, 한국문학회, 2005, 237-266면.
하영삼 외,『한국 근대 한자자전 연구』(한국한자연구소 연구총서 9), 도서출판3, 2019.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d Aspects in Korean Hanja Dictionary Compiled after Modern Times to Today

Shin, Sang-Hyun*

This paper examined how the structure of dictionaries, such as composition and structure of dictionaries, has changed in relation to major Korean Hanja dictionaries compiled in Korea since modern times to today. So, It was intended to help in the compilation of Korean Hanja dictionaries in the future.

For this study, first, has outlined the trend of lexicography by major Korean Hanja dictionaries published in Korea from the modern flowering period to the latest are divided into three periods based on the compilation period.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these Chinese dictionaries over time, so the changes were considered in three aspects: First, in the changes of character shape processing, the ① change of 214 radicals and ② the additional information of Chinese characters were expanded. Next, in the changes of consonant processing, ① Chinese consonant notation method was diversified, ② left the real sound as the center, and the rest disappeared, and ③ Chinese consonant was expanded by adding or changing new Chinese consonants. Finally, in the changes of meaning processing, ① suggested the meaning of English and Japanese translation, ② converted and compiled Korean archaic, sarcastic, and profanity into modern standard words, ③ attempted to display part of speech information of Chinese characters, and ④ tried to present verbs and adjectives by ending with '-다'.

Through the changing patterns of the Korean Hanja dictionaries compiled since the modern era, it is possible to derive how the direction of Korean Hanja dictionary compilation has changed as follows: First, in the process of compilation of various types of Jajeon (字典) and Okpyeon (玉篇), it can be said that the unique Koreanized version of Jajeon (字典) was completed. Secondly, it developed from the form of the

*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

Jajeon (字典) and the Okpyeon (玉篇), in which Chinese characters were compiled, to the form of a dictionary centered on the Chinese character vocabulary. Thirdly, a number of Hanja learning dictionaries have been compiled so that students can learn Chinese characters and Chinese characters vocabulary by including heading characters between 2,000 and 10,000.

As described above, the trend and trend of the compilation of Korean Hanja dictionaries published in Korea after the modern era can give many implications for the compilation of a new Korean Hanja dictionaries in the future.

Keywords: Modern Enlightenment Times, Jajeon (字典) as a dictionary of classical Chinese explained in Korea, Okpyeon (玉篇) as a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Korean Hanja Dictionaries, Changing Patterns, The changes in character shape processing, The changes in consonant processing, The changes in meaning processing, Direction of Korean Hanja Dictionary Compilation, History of Korean Hanja Dictionary Compilation.

접수일: 2021.03.31. ‖ 심사일: 2021.04.16. ‖ 게재확정일: 2021.05.19.